

가네다 성터

쓰시마의 가네다 성은 7세기 후반 당나라와 한반도 신라의 침략으로부터 일본을 지키기 위해 야마토 정권이 광활한 산 정상에 쌓은 요새입니다. 아소 만 남쪽 끝에 위치한 해발 276m의 조야마 산에는 높이가 6m나 되는 석루(돌로 쌓아 올린 보루)가 긴 구간에 걸쳐 남아 있습니다. 맑은 날에는 산 정상에서 한반도가 보입니다.

663년, 야마토 정권과 동맹 관계에 있었던 백제가 당나라와 신라(나당동맹)에 의해 멸망하면서 일본만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당나라 세력에 맞서게 되었고, 이에 야마토 정권은 아시아 대륙으로부터의 공격을 두려워했습니다. 일본해(한국명 동해)를 건너온 백제의 무사들과 기술자들은 적들이 수도인 아스카(현재 나라현에 위치)로 향하는 길목에 있는 국경의 섬들과 규슈, 세토 내해 연안에 조선식 성을 쌓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가네다 성은 이를 위한 최초의 방어선이었습니다. 조야마 산은 깎아지른 절벽 덕분에 서쪽을 방어하기 유리했고, 동쪽과 산 정상 부근에는 높은 석루를 쌓아 침입을 막았습니다. 성 입구는 남쪽에서 여러 개의 문을 지나 동쪽 언덕 중턱에 있는 평탄한 부분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성에 주둔한 경비병들은 이곳에 살면서 교대로 성벽과 산 정상을 순찰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본 침공이 실현되기 전에 나당동맹이 붕괴되면서 가네다 성은 존재 의의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01년, 일본 육군 공병대가 산 정상까지 도로를 깔고 포대를 설치하면서 근대적인 군사 시설로 거듭났습니다. 현재는 산 정상까지 가는 2.4km의 하이킹 코스가 있으며, 이 길을 따라가면 고대 석루 중 일부를 지나가게 됩니다. 날씨가 좋으면 약 1시간 만에 오를 수 있습니다.